



# 내일부터 실명 확인 거쳐야 입·출금

### 까다로운 통장개설, 소득증빙 어려운 학생 등 진입 어려워 은행들 가상화폐 이용 목적만으론 계좌 개설해주지 않기로

30일을 기해 당국은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실명확인인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28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0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의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 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 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인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표 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

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가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어렵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급여계좌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자금 계좌라면 등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폭증하면서 업무가 지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농협은행은 거래 관계가 있는 빗썸이나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개설 요구가 30일을 기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투자 허용 여부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지만 당분간 사실상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개설 문제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 계좌개설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당국이 명확한 허용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신규투자용 계좌개설 문제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개설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이 부분에 주력하고 이후에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은행은 범·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신규 계좌개설 등 영업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 호반건설 단독 입찰...산은 "매각자문사 평가 종료시 속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산은은 당초 이날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실시된 대우건설 본입찰 결과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산은 측은 최종입찰제안서에 대해 아직 매각자문사의 평가가 종료되지 않아 선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어 매각자문사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은행 이사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본입찰에서 주당 7700원에 대우건설 지분 40%만 사들이고 나머

지 10.75%는 3년 뒤에 인수하는 분할인수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혈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어 대우건설 매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은이 지금까지 대우건설에 투입한 돈은 3조2000억원이어서 알려진 가격에 매각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 산은은 지난해 정권 변경으로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손해를 보고 매각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에선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삼성 美 생활가전 점유율 2년째 1위

### 21%...전년비 2.3%p 상승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트라퀼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현지 생활가전 시장에서 21.

0%의 점유율(금액 기준)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면서 선두에 랭크됐다. 삼성전자가 분기 점유율 20%를 초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19.5%의 점유율을 기록, 전년비 이어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김대성기자bigkim@

# 광주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광주테크노파크 방문 현장 소통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입주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부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홍보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가 소상공인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임을 강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생산직 평균 연봉은 6900만원"

### "임금 낮다는 노조 주장 사실 아냐...합당한 고충분담 요구"

금호타이어 사측이 지난 26일 "직원들이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맞서 생산직 직원의 임금 구조를 공개한 결과 금호타이어 생산직 직원은 연평균 69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생산직 임금 수준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현하면서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회사가 과도한 고충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측은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800%(출수 달·설·추석 각각 100%)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타사와 달리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2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100%는 월급의 100%와 동일해 일반 제조업체의 상여금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직이 연간 수령하는 상여금은 평균 2000만원을 초과하며 임금총액의 4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생산직은 휴가비·학자금·의료비 지원·장기근속 포상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임금총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임금총액은 평균 6900만원 정도"라며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거의 모든 생산직 직원들이 상한액인 20만2050원(표준보수월액 449만원)을 납

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생산직 1년차 사원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면 월당은 6만2400원이지만, 생산직 사원 평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정기상여 800%, 휴가비,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면 임금 총액이 약 5590만원에 달한다"며 "노조가 일부 언론에 밝힌 1년차 사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조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에서 임금조정과 고충분담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세관 명절 수출입 통관지원 시행

광주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에 나선다.

이 기간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해소할 수 있

는 해결 지원반도 편성·운영한다. 또 관세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 이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 해양도시가스 한파에 비상공급체계 돌입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지난 28일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전입직원이 비상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22일부터 비상체제 돌입한 뒤 사용량이 많아 공급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압기 점검을 펼치고 있다.

김형순 사장은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고객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해양도시가스가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로또복권 (제79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10	12	31	33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53,081,893			1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6,943,625			38	
3	5개 숫자 일치	1,213,219			2,410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2,931	
5	3개 숫자 일치	5,000			1,713,102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